

1219주년 봉은사 개산대제

법 어

도심의 한가운데도 청명한 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명의 쾌거로 여기며 과학과 물질의 편리함을 급하게 따라가던 현대인들도 이제는 마음의 청명함을 얻고자 사찰을 찾아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대의 선각자들이 정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이에 따르는 삶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온 것과 일치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결실과 수확의 계절답게 풍요로운 하늘과 바람이 이곳 봉은사를 반기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불자님들의 마음마다 담긴 정성이야말로 어느 것에도 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전통사찰로 일신하고 현대인들에게 더욱 친숙한 여가와 문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봉은사 사부대중의 원력은 계절의 청명함에 비해도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일천 이백 여년 동안 불법의 수호와 불법홍포를 통해 오늘날 한국불교 중흥을 일궈온 대표적인 도량에, 이렇듯 사부대중의 원력이 이루어낸 공덕이 봉은사 개산 1219주년을 더욱 향기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개산대제는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이미 순교 448주년을 맞아 보우스님의 동상을 축성하였고, 스님의 공적을 조명하여 현재는 물론 후대에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학술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지난 3년 여의 노력 끝에 주지 진화스님과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보우스님의 '봉은탑'을 낙성하여 올해의 개산대제를 장엄하고 있습니다.

봉은탑 제막은 "지금 내가 없으면 후세에 불법(佛法)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라는 사명감으로 불법을 보호하고 종단을 소생시키는 일에 헌신하신 보우스님의 숭고한 뜻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기게 되는 실로 45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뜻 깊은 불사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불법을 수호하고 불교를 중흥했던 역대의 수많은 조사님과 근현대 큰 스님들이 주석했던 봉은사는 또 하나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후 도시공원으로 묶여 지난 40여 년 동안 중단되었던 봉은사 가람 중창

불사가 최근 도시공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보우 스님과 근현대의 봉은사 가람을 일신한 영암스님 이후 현대 한국불교와 봉은사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봉은사 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의 가피, 그리고 봉은사 사부대중의 간절한 원력이 더하여 이뤄낸 값진 결실이기에, 종단 또한 원만성취를 위해 ‘봉은사 가람정비 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대의 숨결이 현재는 물론 후대에도 생생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이든, 그 어떤 문명이 변화한 도시를 가더라도 그곳에 없는 것이 고맙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조들이 물려주었고 다시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전통문화의 산실이며, 우리가 주인인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는 세계인들이 이곳에서 감탄하고 우리의 문화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이 매일매일 진실한 마음을 쌓아가는 모습은 문화적 감동으로 세계인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전통은 시대마다의 원력과 신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조가 이룩한 천년의 수려함을 이어 다시 천년의 시작을 내딛고 있습니다. 선대가 그래왔듯이 그리고 후손이 그러하기를 바라듯이, 우리는 원력과 신심으로 언제나처럼 정성스런 발원을 품었기에 오늘 이 자리는 어느때보다 깊은 공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불자님의 청안청락을 바라며, 공심과 소신으로 열정을 다해 온 주지스님과 소임자, 그리고 종무원 여러분에게도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봉은사 개산 12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불교 중흥도량으로서 사부대중이 함께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락을 주는 사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10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